

장성, 646억 투입 인구 대전환 ‘로드맵’ 만든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4대 전략 37개 사업 확정
‘장성 원더랜드 조성’ 등 체류형 관광·미래산업 집중

장성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2026년 인구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인구 대전환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구·도시계획·교육·청년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원 위촉과 함께 ‘2026년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심의를 진행했다.

시행계획에는 군이 지난해 달성한 인구 1116명 증가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다.

4대 전략인 모든 세대 활력 있는 삶터 조성, 청년을 품어주는 정주 환경 조성, 지역(로컬) 기반 미식관광 창업 여건(인프라) 구축, 친환경 미래산업 인구 성장에 따른 37개 세부사업에 646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300억원 규모 ‘장성 원더랜드 조성사업’이 눈길을 끈다. 장성호 관광지에 어린이 복합 놀이공간, 이색 숙박단지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해 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백양사를 중심으로 ‘케이·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미식 관광의 거점을 구축한다.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과 보건소 신축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산부 가사 돌봄을 지원하는 ‘맘(mom) 돈돈 케어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꿀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도 구체화했다.

군은 ‘초임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유망 기업들의 입주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층 유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은 완공을 앞둔 청년센터 ‘아우름’(영천리 1486-4, 787-9)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드러냈다.

장성군민회관 인근에 건립 중인 ‘아우름’은 바닥 면적 600㎡, 2층 건물에 일자리센터와 창업 공간, 회의실, 상담실, 다목적홀 등을 갖추고 있다. 취·창업 지원,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한중 군수는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앞둔 올해는 장성 인구 대전환의 승부수를 펼칠 수 있는 적기”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기업이 모여드는 도시, 모든 군민이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 성장장성의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성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2026년 인구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인구 대전환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군동면 복합문화센터



대구면 복합문화센터



음천면 복합문화센터

강진, 정주여건 개선...기초생활거점 조성 본격화

국비 확보...주민참여형 농촌공동체 공간 조성
군동면 80억·대구면 65억·음천면 40억 투입

강진군은 대규모 국비를 확보해 군동면·대구면·음천면 일원에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농촌 지역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다수의 국비를 확보하며 면 단위 중심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군동면사무소 부지에 8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704㎡, 3층 규모의 면청사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만든

다.

대구면도 면청사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올해 내에 대구면사무소 부지에 6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189㎡, 2층 규모로 만든다.

음천면 역시 4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79㎡,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각 사업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 사업이다”며 “국비를 적극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복지·소통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면 단위 생활거점 시설 활성화를 통해 농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은 향후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기초생활거점 시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나주, 노후가로등 교체...도시 기반 개선

사업비 27억 투입...가로등·보행등 4122곳 완료

나주시가 빗가람 혁신도시의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며 시민의 야간 보행과 교통안전성을 높이는 도시 기반 개선을 거뒀다.

3월 시에 따르면 야간 안전성 향상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혁신도시 일원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과 보행등 4122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 민간 투자 11억원으로 재원을 구성해 추진됐다.

민간 투자분은 선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체 완료 이후 5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제공된다.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으며, 2015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설치된 1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가로등 2956등과 보행등 1166등을 대상으로 교체가 이뤄졌다.

새로 설치된 LED 가로등은 기존 조명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긴 고효율 제품으로 광효율 156lm/W, 연색성 80Ra 이상, 고조파전류 10% 이하의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밝고 균일한 휘도를 확보해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인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포함해 약 48%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전기요금 약 2억 6000만원 절감과 함께 탄소 배출량 약 782t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에너지효율향상사업’에 신청해 기존 조명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한 데 따른 지원금 약 2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에도 사업비 약 13억원을 투입해 시간대별로 가로등 밝기를 조절하는 디밍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사업이다”며 “친환경 고효율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 영상기록물 디지털 서비스
2차 사업...24명·38점 파일 제공

담양군은 최근 진행된 ‘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 2차 사업’이 성료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생장치가 없어 보관만 하고 있던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기기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여름에 실시한 1차 사업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군민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1차 사업에서는 53명에게 총 92점의 디지털 파일을 제공했으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24명에게 총 38점의 추억이 담긴 파일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그리워했던 옛 추억을 다시 꺼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를 기록하고 긴 시간 동안 소중히 보관해 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여수, 동계 전지훈련지 성과 ‘지역경제’ 활력

전지훈련·스토브리그 130팀 2500명 방문...지원기준 확대

여수시가 온화한 기후와 체계적으로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지훈련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3월 시에 따르면 단국대 농구팀을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 및 대학팀, 실업팀 등 총 130개팀, 2500여명의 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지훈련팀과 스토브리그 팀 등 8만6000여명이 여수를 방문

해 약 89억2000만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해 냈다.

또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전지훈련 유치 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돼 상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해 경기장 시설 정비 등 체육시설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올려 여수시와 여수시체육회에서 올해부터 전지훈련팀 지원기준을 공공체육시설 대관료 전액 지원, 관광·체험 비용 1인 1만5000원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팀당 120만원 한도 지급으로 변경해 전지훈련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인센티브를 조정·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훈련팀 유치를 위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바스기인 겨울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불편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 재정비와 체육시설 개보수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유지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스토브리그에 참가한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